

「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」 발간 계기 좌담회 개최 결과

□ 통일부는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」 발간 계기 좌담회를 7월 11일(화)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좌담회를 주관한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지난 정부의 수동적 입장을 극복하고 명백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,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 발간의 의의를 평가하였습니다.

○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가 △ 최신의 풍부한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, △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망라하여, △ 인권침해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정보(북한의 정책·시스템·용어 등)도 포함하여 서술되었다는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.

○ 고영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「2023 북한인권 보고서」 발간이 북한에게는 인권 유린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,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○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탈북민으로서 「북한인권보고서」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‘국가의 보호책임’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동 보고서의 발간을 환영하였습니다.

*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‘지난 정부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「북한인권법」에 규정된 보고서 발간을 하지 못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에도 기권한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의 비인간적 조치라 생각한다’고 언급

○ 이미영 님(가명)은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의 증언자 중 한 분으로, 북한에서 장애인으로서 부당하게 겪었던 차별의 고통과 경험을 이야기하시고,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○ 이번 좌담회에는 로이터, 코리아헤럴드, 코리아타임즈 등의 외신과 미국, 캐나다 등 주한 외국공관에서도 다수 참석하였습니다.

*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, 캐나다 외무장관의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 발간 환영’ 입장 선언

□ 통일부는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※ 붙임 : 1. 좌담회 세부 프로그램 2. 좌담회 행사 사진

담당 부서	인권인도실	책임자	과 장	박성림 (02-2100-2310)
	북한인권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홍해련 (02-2100-2311)



붙임1**좌담회 세부 프로그램****1 개요**

- 일시·장소 : '23.7.11.(화) 10:00~11:40,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
- 주 제 :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」 발간 의의

2 프로그램

* 행사전체 영어로 진행(한→영만 순차통역)

일정	프로그램
10:00~10: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회 및 참석자 소개 (사회 : 홍석훈 창원대 교수)
10:05~11:10 (1인당 13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」 의의 (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) ▪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 특징 (최용석 북한인권기록센터장) ▪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와 북한인권 증진 전략 (고영환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) ▪ 탈북민이 본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 의미 (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) ▪ 「2023 북한인권보고서」 속 북한인권 실태 (북한이탈주민 이미영(가명))
11:10~11: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질의응답

붙임2**좌담회 행사 사진**